

“창조-진화 전쟁의 본질은 역사전쟁이며 종교전쟁이다”

■ 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장 홍기범 교수 기고 - ①, ②

1. 창조-진화 역사전쟁

1427년 전(598)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와 당나라 간에 70년에 걸친 전쟁(598-668)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는 또 다른 전쟁이 진행 중인데, 그 전쟁은 바로 한중역사전쟁이다.

통일연구원에서 2004년 12월에 발간한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에 의하면(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동북공정'으로 검색하면 pdf파일을 보거나 다운 받을 수 있다), 중국은 2002년 2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여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고구려-수당 전쟁을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의 통일전쟁이라 주장한다.

KBS TV는 이러한 중국의 역사 주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박했다(2003년 10월 12일, 2004년 3월 6-7일, 2021년 4월 10일). 중국은 발해의 역사도 왜곡하여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을 만주족으로 조작하고 있다(KBS TV). 정신이 온전한 한국 사람이라면 중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주장을 확대해석하면, 고구려가 차지했던 지역에 대한 연구권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고구려가 지배했던) 북한 지역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 정권이 북한 지역에 대한 연구권을 주장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나라와 나라 사이

의 역사전쟁은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

역사전쟁은 역사를 해석하는 싸움이며,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이다. 싸움의 쌍방은 유물이나 고문서, 증언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은 다 역사전쟁이라 할 수 있다.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도 과거에 대한 싸움으로서 역사전쟁이라 할 수 있다. 살인 사건의 재판은 대표적인 역사전쟁 중 하나다. 살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며, 현재 실험이나 관찰을 통하여 판단할 수 없다. 말하

는 것이다. 판사는 증인, 증언, 증거를 근거로 판결하지만, 잘못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살아야 할 사람을 죽이고,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게 된다. 말하자면 판사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직업이다.

'사형수 오해용 이야기'라는 책이 1986년에 출간되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해용은 사귀던 내연녀의 남편과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1979년 9월 13일 사형당했는데, 그는 마지막 유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고문하고 조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사형수가 억울하다고 유언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은 사형수 오해용이 진범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억울한 재판을 최소화하려면 사법시스템을 제대로 세우고, 법조인들은 명예와 이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질차와 인권과 공의와 정의론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인 살인 사건을 재판할 때, 판사는 증인, 증언,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창조-진화 논쟁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살인 사

의 증거로 우주, 생물, 지층, 화석, 석유, 석탄, 고문서를 증거로 인용한다.

말하자면 우주, 생물, 지층, 화석, 석유, 석탄, 고문서를, 창조 진영은 창조의 증거로 주장하며, 진화 진영도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2. 창조-진화 종교전쟁

진화론자 마이클 루스(1940-2014)는 “진화론은 어느 단계에서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선험적인 혹은 형이상학적 가정을 필요로 하는, 종교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엣지 재단(Edge Foundation/edge.org)



홍기범 교수
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장

역사전쟁은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유물, 고문서, 증언 등으로 자신의 정당성 주장
진화에 대한 증인은 없고, 증거는 창조론자들과 똑같이 우주·생물·화석 등 제시

대표적 진화론자 앤터니 플루 1950년 ‘신의 존재 증명이 유신론자에게 있음’을 천명
2002년 그는 “신의 개입 없는 진화로는 DNA를 설명할 수 없다”며 유신론자로 회귀

자연 본질적으로 (관찰과 실험으로 특정지어 지는) 과학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은 증인, 증언, 증거에 기반하여 판결한다. 살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되며, 증인이 한 말이 증

이것은 하느님도 알고 계십니다. 저의 유언을 가족에게 꼭 전하여 제가 죽은 뒤에라도 누명을 벗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검사·판사도 나와 있지만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타리 재판 집어치우십시오. 죽어서 원혼이 되어서라도 위증하고

건 재판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하게 된다. 창조에 대한 증인은 하나님이며, 증언은 성경이며, 증거는 우주, 생물, 지층, 화석, 석유, 석탄, 고문서이다.

그러면 진화에 대한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 진화에 대한 증인과 증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론자들은 진화

는 1981년부터 다양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던 지성인들이 1996년에 온라인 사이트로 전환한 지성인들의 모임이다. 엣지 재단은 “온 세상의 참된 지식을 찾아내려면, 최고의 지성인들을 찾아내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질문을) 서로 묻게하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엣지 재단은 매년 세상의 석학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엣지 재단 사이트에 수록한다.

엣지 재단의 2005년도 질문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였다. 이에 대해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우주 그 어디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지능, 창의성, 그리고 모든 ‘설계’가 다윈의 자연선택이 만들어낸 직접적 또는 간접적 산물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설계라고 하는 것은 다윈적 진화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우주에 뒤늦게 등장하는 것이다. 설계는 진화보다 앞설 수 없으며, 그러므로 우주의 근간을 이룰 수도 없다.”

감리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앤터니

플루(Antony Flew, 1923-2010)는 15세 때, 자신이 무신론자가 되었음을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알렸다. 그 후 철학을 전공한 앤터니 플루는 1950년에 ‘신학과 반증’이라는 책을 통하여 신의 존재 증명이 유신론자에게 있음을 천명하였다. 플루는 무신론 진영의 대표 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004년에 앤터니 플루는 ‘신의 개입이 없는 진화로는 DNA를 설명할 수 없다는 논리적 이유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자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당시 무신론 진영의 충격은 말로 형언하기 힘들다. 리처드 도킨스는 앤터니 플루를 변절자라 비난하였으며, 노벨상을 받지 못한 앤터니 플루가 템플턴 상을 받을 목적으로 유신론자 되었다고 비난했다.

참고로 말하자면, 템플턴 상은 과학자 철학 뿐 아니라 신앙인에게도 준다. 템플턴 상을 수상한 종교인으로는 마더 테레사, 환경적 목사, 달라이 라마 등이 있다.

어떤 무신론 학자들은 앤터니 플루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겨 유신론자가 되었다고 인식 공격을 하기도 했다.

앤터니 플루의 유신론으로의 전환에 대해, 인식공격이 아닌 철학적 용어나 논리적 용어로 반박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는 무신론과 진화론이 종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1953년에 제임스 왓슨과 함께 DNA의 나선 구조를 발견하여 1962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프란시스 크릭(1916-2004)은 이렇게 말했다. “생물학자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임을 끊임없이 명심해야 한다.”



쌍봉낙타, 단봉낙타, 과나코, 라마, 비쿠냐, 알파카.



재판의 많은 경우는 역사전쟁이다.

교육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 선교하는 교회

광주새순교회

GWANGJU SAESOOON COMMUNITY CHURCH

목회자

담임목사
임종갑

부목사

나형덕 김현수 김광원 김다현 주찬양

강도사

이상현

전도사

유경숙 최나은

원로장로

조동운

은퇴장로

김복기 박남희 윤형철 이영욱 이종도 이철주
박주엽 윤영선 안효석 임병원

목양장로

배영봉 김재진 김상진
서석만 이재성 이정일 장동현 정을성

시무장로

강경태 김현수 안성철 조성석 홍채훈
김덕관 김완석 박경수 박혜연

협동장로

최남식 임중빈

광주광역시 북구 모듬대길 34 | Tel. 062-572-9595 | Fax. 062-572-9596 | http://www.saesoon.cc

창조 - 진화 논쟁은 종교전쟁이다

“진화론은 어느 단계에서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선험적인 혹은 형이상학적 가정을 필요로 하는, 종교와 같은 것이다.”
-진화론자 마이클 루스 (1940-2024)

마이클 루스: 미국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철학교수/과학철학/생물철학

한국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